

# 39 십자가의 도

## Chapter

고전 1:17~25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찬양 180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오늘 배울



### 말씀

1.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압니다.
2. 우리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함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위 사진은 러시아에서 인질범에게 붙잡힌 한 소녀가 극적으로 탈출한 뒤에 그 소녀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병원으로 실려 온 소녀는 치료를 하기 전부터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손에 무언가를 꼭 쥐 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간호사가 손을 강제로 펼쳐보니 그 안에는 작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소녀가 붙들며 의지했던 것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 놓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압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강하고 지혜롭게 하는 힘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임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힘을 주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고자 하는 소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 2:20)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눅 9:22~25)

(롬 6:5~11)

(갈 6:14)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을 읽어봅시다.

1.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문명인이라고 자처하던 헬라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비취졌을까요?
3. 오늘날 세상의 학생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4. 그러한 반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5.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곳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며,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인생의 종점

종점입니다~  
모두 내리십시오!



버스를 타면 종점에서 모두 내려야 합니다.  
인생도 죽음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 89:47)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 103:15)

## 십자가 형벌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로, 본래는 앓수르나 바사 제국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입니다. 그 후 그리스와 카르타고로 전래되어 로마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원후 1세기부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실례로 A.D.66년 유대의 반란을 선동하였던 약 3,600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A.D.70년 타이투스 장군은 유대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유대인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형이 성서고고학을 통해 설명된 것은 1967년 이후입니다. 동예루살렘에서 신약 시대의 무덤들과 8개의 유골함이 발견된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당시 이 유골함들에서는 17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위를 파서 만든 바위무덤에 시신을 안치했다가, 유골이 되면 유골함에 모시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 한 유골의 발뒤꿈치 뼈에 철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성은 면밀한 조사끝에 이 유골의 주인이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골의 손목뼈에는 날카로운 흠집이 있어서, 십자가형이 사형수의 손과 발이 아닌, 손목과 발뒤꿈치에 못을 박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매달린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 시간 내에 혼수상태에 빠져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형수들은 먼저 채찍질을 당해야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으며,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한다.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형은 매우 혐오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3~24)**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목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